

변화와 창의정신으로 난관 극복

새해를 맞이하여 가내 두루 평온과 행운이 깃들기 기원합니다.

갑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침은 우리에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시각이며, 더구나 신년의 아침은 일년을 위한 용기와 희망을 주는 아침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세상에서 아침이 가장 빠른 조기 민족이 한민족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 뜻을 부지런하고 희망을 갖고 있는 민족이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되나 반대로 표현하면 배고픔과 자원이 부족하여 허기를 피하기 위하여 남이 자고 있는 시간에도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초라한 민족을 나타낸 뜻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후손에게 많은 지혜와 교훈을 남겨 주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도 어리석음을 다시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훈일 것입니다.

지난 계유년의 다사 다난했던 커다란 사건 사고는 우리 기억에 잃어 버릴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기억으로 남기기에 너무나 엄청난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컸고, 역사적으로는 후손에게 오점을 남겨준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좌절보다 의욕을, 안일보다는 변화와 창의정신으로 난관을 극복하는 힘을 갖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저희 협회가 맡고 있는 국민을 위한 방재기관으로서 국민에게 해야 할 역할과 임무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94 새해를 맞아 다시 음미해 봅니다.

재해가 국민의 생활에 불편과 불행의 공포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20년간 쌓아온 기술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방재시험연구소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여 효과적 연구의 산실이 되도록 할 것이며, 또한 성실한 안전점검과 철저한 봉사정신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대형 산업 시설은 물론 각종 편의 시설에도 위험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대입시켜, 명실공히 선진 방재기관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임직원의 각오도 남다른 면이 있어야 합니다.

경험과 지식은 현실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분류될 수 있고, 정보관리는 그 질을 높이는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고는 진취적으로, 행동은 적극적으로 하자. 우리 회사의 사시가 말해주듯 우리의 사명감은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남과 견주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그만한 댓가를 지불해야 가능한 것처럼 피와 땀이 맺어주는 결과인 것입니다.

2천년대 방재기관의 선두주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이 핵심적으로 장치되어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기술 습득, 지식 향상, 정보 관리 등 조직에서 요구되는 인적 요소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미래는 밝은 빛으로 밝혀질 것이며, 세계의 햇살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에도 협회에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사원사, 특수건물 소유주, 관계 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도 저희 협회업무에 보다 많은 격려와 충고, 협조가 있으시길 기대하며 갑술년 한 해 동안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1994. 새해 아침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정 왕 선